

'천자연 슬로시티 전주'

시, 5개년 추진 '제3기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 5대 전략 수립 슬로라이프 운동·전주형 슬로마을 조성 등 시민 행복도 높일 것

세계 최초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형 슬로마을을 조성하고 슬로운동을 강화할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생태와 자연,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슬로시티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슬로시티 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제3기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 받은 시는 제2기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세웠다. 제2기 계획이 전통·문화·예술 중심이었다면 제3기 계획에는 생태 슬로시티에 초점이 맞춰진 특징이다.

5개년 계획은 '천자연 슬로시티 전주'를 비전으로 ▲생태 슬로시티 ▲슬로라이프·슬로지기 ▲슬로 투어리즘 ▲슬로시티 푸드 ▲슬로시티 브랜드

등 5대 전략과 9개 중점과제, 24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생태 슬로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원도시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정원문화 조성,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에너지 디자인 3040 추진, 생태교통수단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태슬로시티 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시민중심 슬로라이프 운동과 슬로지기 육성 등 민간 협업도 강화한다. 전주형 슬로라이프 강령을 제정해 슬로공동체들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음식, 전통놀이,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슬로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주한옥마을과 그 주변에는 전주형 슬로마을을 조성한다.

'천천천한 진짜관광'을 주제로 한 슬로투어리즘 분야에도 힘을 쏟는다. 덕진공원 등 휴식공간과 서노송예술촌 등 문화예술 도시재생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슬로 10선을 발굴, 조성

과 슬로길 등 관광상품 콘텐츠 강화로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현한다. 특히 관광트램을 한옥마을에 조성하고 정감 있고 소박한 슬로여행을 육성해 낭만도시로 리브랜딩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슬로쿠킹 힐링 클래스 운영 등 슬로시티 푸드 전략과 세계슬로포럼&어워드 등 슬로시티 브랜드 강화 전략도 마련했다.

향후 시는 제3기 국제슬로시티 전주 종합계획 세부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국제슬로시티 인증 72개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 최초 슬로시티인 전주시는 사람과 생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슬로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전파하는 슬로라이프 운동과 전주형 슬로마을 조성, 슬로투어리즘 구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행복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후백제 유적 정밀발굴조사 추진

무릉고분군 지표물리탐사·우아동사지 시굴조사·서고산성 추정서문지 등 대상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서고산성 추정 서문지와 우아동사지, 무릉고분군 등에서 후백제 유적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조사 대상은 ▲무릉고분군(3,220㎡) 지표물리탐사 ▲우아동사지(1,743㎡) 시굴조사 ▲서고산성 추정 서문지(145㎡) 등이다.

시는 아중저수지 인근 산 정상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무릉고분군의 경우 정연하게 배열된 돌 조각이 확인됐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나온 만큼 후백제 분묘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무릉고분군의 분묘 형태와 내부시설의 형태를 가늠하기 위해 지표물리탐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발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무릉마을을 남쪽 암석골 인근에 위치한 우아동사지는 우물지와 석축의 흔적과 함께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된 곳이다. 시는 오래 전부터 짙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를 확인한 뒤 추후 발굴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시굴조사와 지난해 남서성벽 조사를 통해 동고산성과 유사한 형태의 성곽이 확인된 서고산성 추정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서고산성 추정 서문지와 우아동사지, 무릉고분군 등에서 후백제 유적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서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발굴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축조기법 및 성곽유적의 증·개축 과정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타 지자체와 함께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다양한 후백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시 전역에 산재한 후백제 유적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후백제의 왕성 및 도성으로 추정되는 노송동을 비롯해

동고산성 서문지, 서고산성 성벽과 건물지, 남고산성 집수정지, 우아동 도요지, 와요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해 후백제 역사의 흔적을 확인했다.

조문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후백제의 왕도로서 전주의 1000년 전 찬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백제를 중심으로 천년왕도 전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사업 기여한 공로자에 감사패 수여

재창조 1단계 복원사업 기여 10명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기여한 10명의 공로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13일 전주시장실에서 최기영 복원공사 대목장 등 전라감영 재창조 1단계 복원사업에 기여한 공로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최기영 복원공사 대목장 ▲김지민, 김종영 기술지도자문 ▲최종만, 송동선 1차분 공사업체 대표 ▲김행수 1차분 공사 현장소장 ▲김재문 2차분 공사업체 대표 ▲이범관 2차분 공사 현장소장 ▲황호범 1차분 공사 감리현장소장 ▲신진영 2차분 공사 감리현장소장 등 10명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옛 위용을 되찾고, 최대한 조선시대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되는 데 공사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라감영 1단계 복원사업을 통해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7동의 핵심건물을 복원했다. 또 지난



전주시는 13일 전주시장실에서 최기영 복원공사 대목장 등 전라감영 재창조 1단계 복원사업에 기여한 공로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달에는 전라감영 서편부지의 임시정비를 마쳤다. 향후 시는 완산경찰서 부지 이전 논의 등을 거쳐 전라감영 2~3단계 복원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감영 1단계 복

원 사업을 잘 마무리해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주의 자긍심을 높여주시는 공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진행될 2·3단계 복원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노인 맞춤형 복지주택 들어선다

전주시, 2024년까지 평화중공 4단지 유희부지에 건립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사회 복지시설을 갖춘 복지주택이 전주시 평화동에 생긴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7억여 원을 투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평화중공 4단지 유희부지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에 설계가 적용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게 특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화중

공 4단지 유희부지에 노인 맞춤형 복지주택 7~8평형 12호와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건물을 지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국토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뒤 내년 1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4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 모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이 또 하나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7월까지 신중양시장 증발냉방장치 시스템 구축

전주 신중양시장 상인과 고객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됐다. 5°C 가량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세먼지와 악취까지 줄일 수 있는 냉방장치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증발냉방장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까지 도비 3억4,800만원 등 총사업비 5억8,000만원을 들여 신중양시장 증발냉방장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증발냉방장치의 경우 미세한 물간개를 분사해 외부보다 5°C 정도의 온도를 하강시키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LED 조명도 탑재시켜 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법(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쳤으며,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설치할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